

# 성리철학 원리 집대성한 율곡과의 대화

인간사·도에 관한 담론

곽신환

승실대 교수·철학



**“기는 이의 기이고 수는 기의 수입입니다. 기는 후박의 차이가 있고, 수에는 장단의 차이가 있습니다. 수·기·리 이 세가지는 그 바탕에 있어 연관성이 깊고 그 작용은 서로 통하여 위배되지 않습니다.”**

율곡 이이.

**곽생** — 선생님! 화석정은 춘경 추색 못지않게 신록의 정취도 매우 깊습니다. 방문을 허락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율곡** — 도에 관한 담론이야말로 가장 향기롭고 또 의미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국사가 번다합니다마는 저는 가능한 한 이런 만남을 많이 만들고자 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유교이념의 정책과제 밝힌 책문**

**곽생** — 이미 많은 분들이 선생님을 찾아 뵈고 나눈 대화들이 널리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기설·심성론·경제론 등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다른 분들이 여쭙지 않은 소재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많은 양의 책문(策文)을 지으셨습니다. <천도책(天道策)>을 비롯하여 <역수책(易數策)>·<사생귀신책(死生鬼神策)>·<신선책(神仙策)>·<기도책(祈禱策)>·<천도인사책(天道人事策)>·<절서책(節序策)> 등 제가 헤아려본 바로는 무려 스물두편이나 됩니다. 이는 500년 조선왕조의 다른 학자 관리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드문 현상입니다. 이처럼 책문을 많이 지으신 동기가 무엇입니까?

**율곡** — 아, 그것들은 대부분 국가에서 내게 연구 휴가를 주어 주로 독서당이나 호당에 머

물면서 연구한 결과 보고서입니다. 혹 <동호문답(東湖問答)>이란 글 보셨는지요. 그것도 사가독서의 혜택을 받아 써낸 것입니다. 성상께서 제게 각별히 관심을 주시고 저로 하여금 현안 과제들에 대하여 연구할 것을 명하시므로 그런 결과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곽생** — 그렇다면 이 모든 책문들이 모두 이른바 정책 과제들이었다는 말씀입니까? 또 이 책문들의 제목들은 당시 조야의 현안 과제들이었다는 뜻이 되겠군요?

**율곡** —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대체로 그러합니다. 우리 조선이 유학으로 입국한 지 200년 가까이 되었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유교적 이념과 제도가 삶의 세계에 충분히 정착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서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조정에 있는 백관들이나 향촌의 지도층조차도 아직 불교와 도교적 습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그렇게 서슬 퍼렇게 ‘승유억불’을 표방하였음에도 궁궐에서조차 은밀하게 불사(佛事)를 행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전대 조광조 선생의 상소로 소격서가 혁파되었습니다마는 도교적 습속도 왕실과 민간에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곽생** — 아! 그래서 선생님의 모든 책문에는 서두에 성리철학적 원리를 먼저 피력하셨군요. 제가 듣기에 성리학에서는 살아 있을 때는 기

가 모인 것이고 죽음은 기가 흩어지는 것인데, 기는 시한성을 지니고 있어서 시한이 지나면 소멸하여 버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귀신이 나타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세간에는 천당지옥에 대한 신념이 매우 강합니다. 또 만일 죽은 후에 아무런 지각이 없다고 한다면 유교에서 제사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율곡** — 이미 지각이 없다면 비록 천당과 지옥이 있더라도 그 괴로움과 즐거움을 알지 못할 터이니 불가에서 말하는 인과응보설은 저절로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가에서 드리는 제사는 이치가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어 아직 오래되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정기(精氣)가 흩어졌다고 할지라도 바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이때 정성과 공경이 지극하면 그 조상의 혼령과 감통(感通)할 수 있습니다. 먼 조상 즉 죽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 그 기가 아주 흩어져 버린 경우라 할지라도 그 이는 사라진 것이 아니므로 감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기·수에 의한 수요 설명**

**곽생** — 세상에는 장수하는 사람도 있고 요절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하여 성리학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요?

**율곡** — 다른 문제도 그러하지만 수요(壽夭)의 문제도 성리학의 이(理)·기(氣)·수(數) 이 세 개념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는 기에 붙어 있는 것이고 기는 이에서 나온 것이며 수는 기로 인한 것입니다. 즉 기는 이의 기이고 수는 기의 수입입니다. 기는 후박(厚薄)의 차이가 있고 수에는 장단(長短)의 차이가 있는데 기의 후박은 후천적 노력에 의하여 배양이 가능하지만 수의 장단은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곽생** — 수에 의한 설명이란 무엇입니까?

**율곡** — 천지의 수는 일원(一元), 인간은 일세(一世), 초목은 세월(歲月), 하루살이는 하루를 각각 그 수로 삼는다는 것은 동서고금에 모두 인기 있는 설명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물의 종류가 하나도 아니요, 사람도 개인에 따라 그 수명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그 수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수명을 그 수로만 설명하는 것은 그 수가 기에 근거한 것임을 모르는 데

서 나온 견해일 따름입니다.

**곽생** — 수요를 기에 의하여 설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율곡** — 예를 들면 상고시대는 기질이 순후하여 사람들이 욕심이 적었고 그리하여 그 기를 온전히 함으로써 장수를 누렸다고 하고 후대에는 기질이 부박하여 욕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기를 손상하여 요절하게 되었다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도 옳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기가 이에서 나온 것임을 알지 못한 때문입니다. 우주의 기는 예나 이제나 한결 같은 것이어서 옛사람만 장수하고 이제 사람은 요절한다는 법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곽생** — 이를 중심으로 하는 경우도 설명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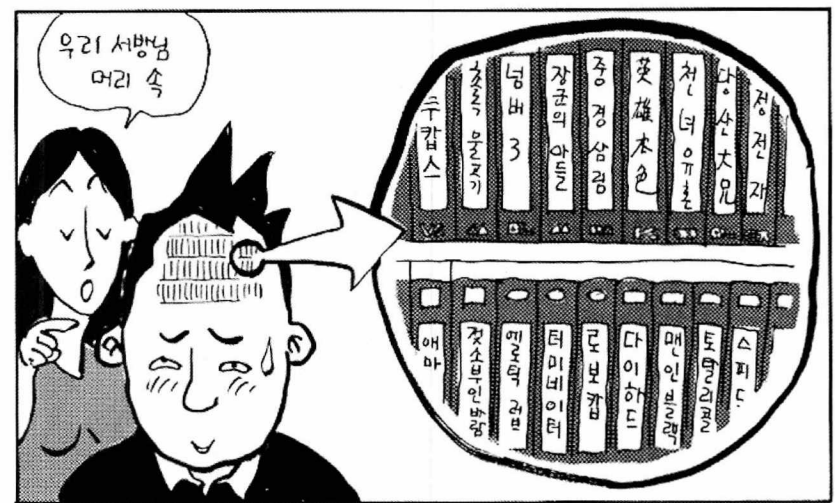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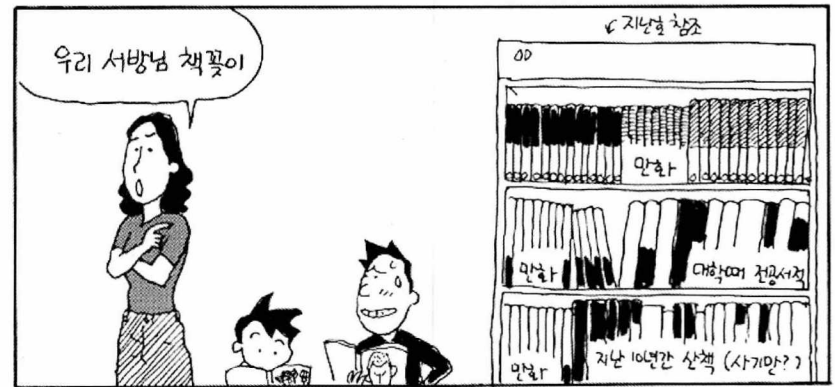
**율곡** — 어진 사람은 마음이 넓고 몸이 크고 평안하며 기운이 화평하므로 조화를 이루고, 그 기가 배양이 되어 장수를 누리고 하늘의 도움을 얻지만, 어질지 못한 삶은 그 정이 방탕하고 온몸이 강건하지 못하며 바탕 기운을 해쳐서 스스로 망치게 되므로 하늘의 책벌을 받아서 단명한다는 식의 설명을 말합니다. 이 설명은 일견 매우 그럴 듯합니다. 그러나 안연을 보십시오. 그는 공자로부터 가장 어진 사람이라는 칭송을 받았음에도 단명하지 않았습니까? 도척의 경우는 어떨습니까? 그가 그렇게 포악을 자행했음에도 장수를 누렸지요? 이런 경우 하늘이 그 착한 자를 돕는다는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따라서 이치만 떼어내어서 설명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기의 이인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곽생** — 그렇다면 수요를 비롯한 인간사가 모두 이·기·수를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이겠군요?

**율곡** — 그렇습니다. 기에는 크고 작음, 맑고 흐림, 치우치고 바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의 두터움과 얇음에 따라 길고 짧음이 나뉘고, 기의 맑고 흐림에 따라 선과 악이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기의 청탁과 후박이 서로 상관성이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청한 기운이라 해서 반드시 후하고 탁한 기운이라 해서 반드시 박하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요와 순은 맑고도 두터운 기를 지니고 있었으나 공자의 기는 맑았지만 얇았습니다. 안연도 맑았으나 얇은 기를 타고 났고 도척은 혼탁하면서도 두꺼운 기를 타고 났습니다. 그

# 책과 이대리

박 시백



“울곡선생과 나는 대화는 이기설·심성론 등으로 소개돼 있습니다. 선생께서 스물두편에 이르는 책문의 서두에 성리철학적 원리를 먼저 피력한 것은 유교적 이념과 제도가 삶의 세계에 충분히 정착하지 않은 당시 사회에 대한 일종의 정책과제였던 셈이군요.”



곽신환 교수

러나 앓은 기는 배양에 의하여 보충이 가능합니다. 마치 화로에 담긴, 형세가 미약한 불길일 지라도 밀실에 두고 그 불기운을 잘 보존하면 오래갈 수 있고 들판을 채우는 형세가 왕성한 불일지라도 사람이 혼신의 힘을 다하면 꺼버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들판의 불길은 그 기운을 돋우고 화로의 불은 꺼버린다면 그 현격함은 더 두드러질 것입니다.

### 유가의 도기법(導氣法)

곽생 — 기는 기를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울곡 — 혈기가 풍족하면 정기가 풍족해지고 정기가 풍족하면 외부 질병의 침입을 받지 않습니다. 공자께서는 일찍이 ‘소년기에는 여색을 경계하고 장년기에는 싸움을 경계하고 노년기에는 탐욕을 경계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유가의 도기법(導氣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대의 학자들은 기질변화론(氣質變化論)을 주창하였는데, 그들은 앓은 기를 두텁게 하는 것보다는 혼탁한 기를 청수하게 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즉 어리석은 자를 현명한 자로 바꾸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의 청탁론 못지않게 후박론에도 관심을 지녀야 합니다. 왜냐하면 맑고도 두터운 기가 더욱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곽생 — 유가의 양기론(養氣論)과 도가의 양기론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울곡 — 유가의 양기는 반드시 이치 즉 도와의 의에 의존하는 데 반하여 도가는 물질의 기로 기를 기르고자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즉 도가는 기로써 기를 기르는데 유가는 이치로써 기를 기릅니다. 도가의 양기를 흔히 양생(養生)이라고 하는데 양생만 위주로 하면 오히려 도덕 수양에 해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곽생 — 그렇다면 요즘 유행하는 ‘기를 받는 다’고 하여 병약한 자들이 타인의 강한 기를 받으려는 일이 있는데 이는 도가적인 것으로 유가에서는 반대합니까?

울곡 — 그렇습니다. 남의 기를 잘못받으면 사악한 기를 받는 수도 있으니 매우 조심할 일입니다. 물질의 기로 기를 기르는 일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가의 양기는 맹자의 호연지기를 기르는 것과 같이 ‘곧음’ 즉 도의 또 는 이치로 기를 기릅니다. 이처럼 수와 기와 리 이 세가지는 그 바탕에 있어서 서로 연관성이 깊습니다. 그리고 그 작용은 서로 통하여 위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세가지 중에서 어느 한가지만 떼어내서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곽생 — 귀한 가르침 감사합니다. ❖